

# “강제동원 피해자 이름 기록하고 명예회복시켜야”

‘밀리한초 학살’ 등 추적 일본 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시

## 전남 출신 214명 등 218명 본격지·사망 일자·원인 등 밝혀내 일본 중·고생 위한 책도 발간 “강제징용은 국가폭력의 문제”

1945년 2월 발생한 밀리한초 학살은 남태평양 마셜제도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식인(食人) 사건에 저항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 학살로 인해 모두 55명의 조선인이 사망했고, 이들을 포함해 전쟁 중 밀리한초에 끌려가 세상을 떠난 218명 가운데 전남 출신은 214명에 달한다.

이 사건을 꾸준히 추적해온 일본인 강제동원연구자이자 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67)씨를 7일 일제강제동원시민 모임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케우치씨의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18명 사망자 전체의 본격지와 사망 일자, 원인, 친권자 등이 밝혀졌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이 문제에 천착해온 데 대해 “단순히 한 나라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국가 폭력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 전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게 평화이고, 그 평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시의회에서 ‘밀리한초 조선인 학살 사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그는 “피해자들을 아사 직전에 몰아넣고 인간의 육식을 먹게한 후 학살까지 한 역사가 은폐된 채 80년이 지났다”며 “전쟁의 피해와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군 육군비행부대와 군수공장이 있었던 하바마츠 출신인 다케우치 씨는 공습으로 3000여명 이상이 사망한 피해의 도시이자, 상대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하는 비행대가 있던 가해자의 도시에서 성장했고 조부모 역시 필리핀에 머무는 등 어려서부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왔다.

그는 오랫동안 시즈오카현 등 전국의 탄광, 발전



소 등 강제동원 현장을 방문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그는 1980년대 한일 교과서 문제와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어진 위안부 증언과 재판, 일본제판 지원단 결성과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활동 등을 접하면서 역사와 마주하게 됐다. 그는 탄광, 발전소를 직접 탐방해 기록한 ‘조선인강제노동(전 4권)을 공동 집필했으며 ‘조선인의 강제 노동의 역사 부

정을 묻다’도 펴냈다. 또 중고생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한 책도 이와나미 서점을 통해 출간했다.

“이번에 명부를 제작하며 18살, 19살에 목숨을 잃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보게 되더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역사이고, 우리는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보통 역사의 기록에서 개인은 사라져 버리는데 개인 개인의 삶이 모여야 바로 역사가 됩니다.”

그는 이번 작성한 자료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았던 ‘진짜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역사에 남기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광주전남 지역에서 규모와 상관 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다케우치씨는 광주를 떠나기 전 시민모임 사무실에 보관중인 고(故)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남긴 방대한 자료를 살펴봤으며 8일에는 담양을 방문, 피해자 중의 한 명인 고(故) 김기만 씨의 조카 김귀남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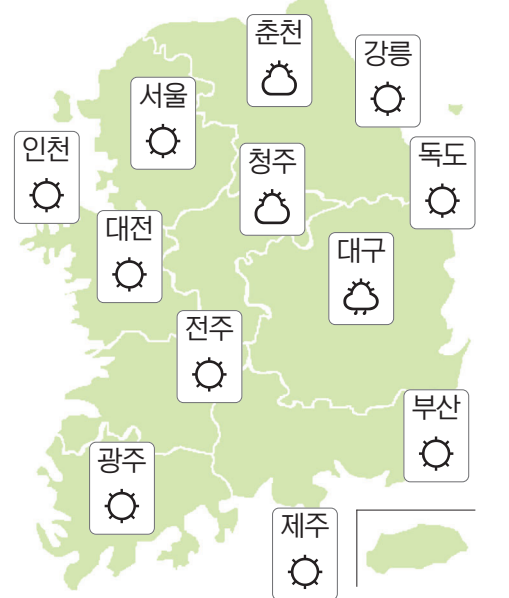
해돋이	05:18	달뜨기	08:26
해질	19:47	달짐	23:15

### 본격 무더위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무더위

광주	맑음	19/31	보성	맑음	15/30
목포	맑음	19/27	순천	맑음	18/32
여수	맑음	20/28	영광	맑음	18/29
나주	맑음	17/30	진도	맑음	16/27
완도	맑음	18/30	전주	맑음	18/31
구례	맑음	17/32	군산	맑음	18/28
강진	맑음	17/31	남원	맑음	17/31
해남	맑음	17/30	흑산도	맑음	18/26
장성	맑음	16/30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파고 (m)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여수	10:06	04:54	21:56	16:37
	05:30	11:21	17:24	-:-

### ◇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

### ◇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	☀	☀
20/31	20/32	20/32
14(금)	15(토)	16(일)
☀	☀	☀
20/31	21/29	20/29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전남대 후광학술상’

최재천(사진 가운데)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전남대학교 제17회 후광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생물학자 최 교수는 학술적 업적과 위상, 전 인류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이 후광학술상에 잘 부합돼 ‘미래·창조발전 분야’에 선정됐으며 시상은 지난 5일 전남대학교 개교 72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진행됐다.

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is)’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졌고, 최근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속론’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2004년 과학진흥훈장에 이어 2005년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상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주요 저·역서로는 ‘개미제국의 발견’ ‘통섭’, ‘통섭의 식탁’, ‘최재천의 관중사회’, ‘속론’ 등이 있다.

한편, 후광학술상은 전남대학교가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 제정했다. 민주·인권·평화의 실현을 위해 공헌한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단체에게 수여하며 2022년부터는 ‘미래·창조발전 분야’를 신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가수 김희재 팬클럽 ‘광주희랑별’ 제빵봉사

가수 김희재 팬클럽 ‘광주희랑별’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나눔터에서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수 김희재의 서른살 생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소금빵과 카스테라를 직접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광주희랑별은 이전에도 첫 번째 정규앨범 발매를

기념해 앨범을 기부하고, 소외계층에게 화장지와 라면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으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가수 김희재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희재는 지난 3월 정규앨범 2집 ‘히노에락’을 발표했으며 오는 28일 초연 예정인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아리아 코세이 역에 캐스팅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4일 ‘2024년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청렴 연극은 반부패 관련 법령과 규정을 상황극을 보여줬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 광주대 송창영 교수, 광덕고에 장학금 천만원 기부



광주대학교 송창영(사진) 교수는 지난 7일 모교인 광주 광덕고등학교(학교장 박종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 교수는 지난 25년간 대한민국 재난 안전 분야에 헌신한 방재전문가로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해 을지연습, 재난관리평가 등에서 평가반장 활동을 하며 현장 중심의 재난역량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재난 안전 강의 등을 실시하는 송 교수는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를 신설해 재난 안전 전문가 양성에 도 힘쓰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연용=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터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권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

- 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물러나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